

31명 모집에 45개국 277명 지원, 새마을정신 배우기 열풍

박정희새마을대학원

“한국의 개발을 이끈 새마을정신을 배워 고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에콰도르 교육과학기술부 마리아 베르메오 전 차관보(30·여)는 최근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 지원한 동기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보좌관을 거쳐 2013년부터 최근까지 차관보를 지내는 등 에콰도르의 차세대 리더로 꼽히고 있다.

영남대가 지난달 외국인인 대상으로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의 하반기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31명 모집에 45개국 277명이 지원해 8.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2년 처음 외국인 신입생을 모집한 이후 최고 경쟁률이다. 올해는 세계 각국의 고위 인사들이 지원했다.

티모르 요르단 팔레스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에라리온 이집트 바누아투 아제르바이잔 멕시코 코스타리카 페루 등 11개 국가에서는 첫 지원자가 나왔다. 대학원 관계자는 “새마을 개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증거”라고 말했다.

2011년 11월 설립된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자립경제기반 구축에 필요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원이다.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자립지원 원조모형을 개발해 인류공영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개도국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글로벌 새마을 리더로 육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52개국 25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했고 올해 8월 현재 125명이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학생들의 국가 다양성 측면은 단일 대학원으로는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많은 나라의 인재와 각종 개발 분야의 공무원, 실무자가 교류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도 실력과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9월 현재 34개국 유학생 116명은 매월 1차례 캠퍼스에서 ‘새마을 조기 청소의 날’을 실천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 이들이 오전 6시 반부터 새마을노래에 맞춰 캠퍼스 정문에서 본관까지 곳곳을 청소하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다. 요즘은 교직원과 학생들도 동참한다.

필리핀 출신의 나바로 사라 에라인 씨(30)는 “단순히 청소에만 머물지 않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다지는 것이라 생각해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학위를 받아 고국에 돌아가면 조기 청소와 같은 단체 활동을 비롯해 새마을운동이 나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한국 개발 정책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중 새마을운동의 원리와 철학은 핵심 콘텐츠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이뤄진다. 이론뿐 아니라 현장을 골고루 익히도록 한다. 학생들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 재배 농가를 찾아 첨단 기술도 배운다. 구미 삼성전자와 포항 포스코 등 산업시설도 둘러보고 첨단 기술을 경험한다. 1년에 3학기 운영되며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마지막 4학기 때는 고국으로 돌아가



박승우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장(왼쪽)이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새마을정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세계각국에서 온 엘리트 포함 다양한 학생들 한국에 몰려 근면 자조 협동 정신 익혀 고국 돌아가 국가발전 기여

논문을 작성해 제출한다.

이 같은 학기 운영은 1년만 휴직하면 공무를 할 수 있어 개도국의 정부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지원자에게 큰 이점이다. 베트남 출신 레 티하투 씨(28·여)는 환경 정책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입학했다. 그는 “새마을대학원은 경력을 쌓고 역량을 개발하기 좋은 교과과정으로 짜여 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얻어 기쁘다”고 말했다.

졸업생은 새마을정책 개발 전문가로 고국의 정부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 르완다 갓시보의 시장에 당선된 가 사나 리처드 씨(40)가 대표적이다. 올해부터 서울에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여는 것도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배경이다.

2008년부터는 경북도와 함께 ‘글로벌새마을포럼’도 열고 있다. 새마을운동을 지구촌 공동 번영과 상생 협력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국제 학술대회다. 향후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열린 5회 행사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38개국 500여



영남대 캠퍼스에서 1일 열린 새마을 조기 청소의 날 행사에서 박정희새마을대학원 학생들이 인도를 청소하고 있다.

명이 참석해 각종 현안 해결과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은 지난해 3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도국 개발을 위한 지도자 양성사업 석사과정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같은

해 이 사업의 평가 1위에 올랐다. 올해 4월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TIT)의 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운영기관으로 추가 선정되는 등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박승우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장 인터뷰

“각국 핵심정책 수행하는 인물 배출”

“글로벌 새마을운동이 국제개발 협력과 지원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승우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장(56)은 “설립 초기엔 걱정도 했지만 개원 4년 만에 세계 각국의 유학생뿐 아니라 정부 고위 인사, 변호사 외교관 등 전문직 종사자까지 찾은 정도로 경쟁력을 쌓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다수 선진국의 국제지원이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추진에 머물렀다면 새마을운동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지난달까지 총 117명이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가 승진을 하거나 중요한 부서로 진출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생 가운데 각국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핵심 정책을 수행하는 인물도 나오고 있다. 몇 년 안에 고위직 공무원이나 최고 경영자도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새마을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한다. 매달 생활비 100만 원도 받는다. 박 원장은 “교육을 통한 국제 공적개발 원조(ODA)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박승우 대학원장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도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시행했던 기반 구축 중심의 원조가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인적 계발 위주로 지원해야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이 대학원에는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의 장학금 지원이 늘고 있다. 산림청을 비롯해 대구시와 경북도 경남도 등 지금까지 13개 기관이 약 88억 원을 지원했다. 박 원장은 “글로벌 새마을운동과 교육과정이 지자체의 관심을 받으면서 ODA 차원의 장학금도 이어지고 있다. 새마을정신과 박정희 리더십을 배우려는 개도국 인재들의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새마을운동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3대 정신에 나눔 봉사 창조가 어우러지면 지속가능한 정신 운동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새마을학(學)이 세계적인 학문으로 우뚝 서고 새마을정신이 지구촌 삶을 새롭게 하는 에너지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우리국민 69.3% “새마을학으로 학문화할 필요있다”

광복 70주년 새마을운동에 대한 의식 조사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가 올해 7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복 70주년 새마을운동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 응답자 72.9%가 ‘새마을운동을 공유할 국제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69.3%는 국제사회에서 빈곤 개선 프로그램으로 인정받는 새마을운동을 ‘새마을학’으로 학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69.7%는 지구촌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의 새마을운동 공유 시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9.8%가 ‘한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고 51.1%가 해외에 알려진 새마을운동의 위상을 알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적합한 대륙은 아프리카 49%, 아시아 31.9%, 남미 2.6% 순으로 조사됐다. 역점 과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 39.7%, ‘개발도상국 빈곤 퇴치’ 37.7%, ‘기반을 지키는 의식 개혁’ 27.9%, ‘환경보존’ 19.8%, ‘다문화 사회 포용’ 15.8% 순으로 나타났다.

광복 이후 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친 정책에 대해 52.3%가 새마을운동이라고 대답했다. 경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유학생들이 지난달 27일 강의를 마치고 대학원 앞에서 활짝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개발 5개년 계획 44.4%, 수출 주도형 산업화 25%, 중화학공업 육성 20%가 뒤를 이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3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새마을노래 16.7%, 근면 자조 협동 12.6%, 새마을 깃발 8.5%, 농촌 풍경 6.6% 순이었다.

새마을운동 성과를 묻는 항목에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

았다. 이 밖에 농촌생활 환경개선 43.6%, 경제발전 39.9%, 국가 근대화 23.1% 등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자신감 고취 29.3%, 가난 극복을 위한 자조의 힘 27.5%, 부지런한 국민성 일깨움 22.4%, 주민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 실현 8.5%, 애항심 애국심 함양 7.3% 순으로 조사됐다.